

인류의 마지막 위기로

부터

하느님의

구제

마지막 예언자의 말씀



캐서린 테일러

인류의 마지막 위기로 부터 하느님의 구제

worshipJehovah.org 발간

저작권 © 2013 년 worshipJehovah.org

복제불허

표지 이미지: 저작권 © worshipJehovah.org

번역 제공 :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네덜란드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의), 러시아어, 태국어

www.worshipJehovah.com 를 통해

worshipJehovah.org 는 특정 종교와 연관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고지

상기 저작권 고지와 본 저작권 라이선스가 모든 해당 사본과 파생작에 포함된 경우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본 문서를 복사하고 출판하고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본 문서의 특정 파생작을 작성, 복사, 출판 및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권 라이선스에 준해 오직 아래에 명시한 파생작만 허용됩니다.

- I. 주석이나 설명을 제공할 목적으로 본 문서의 전체나 일부를 포함하는 작품(예를 들면 본 문서의 주석본),
- II. 본 문서의 출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본 문서의 전체나 일부를 포함하는 작품,
- III. 본 문서를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고 다른 포맷으로 변환한 작품, 그리고
- IV. 그에 따른 기능을 실행함으로써(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복사하여 붙여넣음으로써) 일반 부합 제품에서 본 규격을 사용하는 작품.

그러나 본 문서 자체의 내용은 영어 외 다른 언어로 또는 다른 포맷으로 번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고지를 삭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어떤 식으로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상기 허여된 제한적 허가는 영구적이며 저자 또는 worshipJehovah.org 또는 그 계승자 또는 양수인에 의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위기로 부터 하느님의 구제
2.00 버전 (한국어) PDF
2014년 2월 19일

목차

봉헌	i
머리글	iii
파트 1 — 확신을 갖는 이유	1
서문	3
여명...	4
하느님의 간섭	7
안개가 걷힘	10
성서의 주제	15
마지막 예언자	20
우리의 접근 방식	25
... 요약	29
파트 2 —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	31
우리의 요청 및 하느님의 응답	33
하느님의 구제	39
안전	39
명확성	41
진정한 구제	47
심판과 계시	50
삶에 들어섬	56
... 요약	59
파트 3 — 하느님의 간섭에서 우리의 역할	61
감사	63
언제 우리는 요청할 것인가?	66
우리의 유일하고 거룩한 특권	69
부록	75
참고 문헌	77

봉헌

전능하신 하느님께

יהוה

하늘의 우리 아버지께,

그리고 그분의 돌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이의 평강을 위해

머리글

본서의 출판은 어려운 시대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현재 기후 위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해 본 적이 없는 인류의 종말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초로 인류 종말이 가까운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이 냉혹한 인식과 함께 하늘로부터의 심판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래 전에 심판은 우리 관심 밖의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위험이 임박했고 오랫동안 누려왔던 삶의 보장과 확실성은 힘을 잃고 우리를 안심시키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 단계에 올 때까지 하늘은 어떻게 오랫동안 기다렸는가를 설명합니다. 믿음 또는 종교가 아닌 인류의 필요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이 구제될 것이며, 진노를 하시며 재림할 것으로 무섭게 묘사되어 온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와 달리 우리의 도움 요청에 기쁘게 응하실 것으로 이 책은 보여줍니다.

기후 위기는 고통을 줄 것이지만 그 자체도 하느님의 거룩한 구제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번창하는 동안 종결될 것입니다.

파트 1

—

확신을 갖는 이유

서문

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 도움을 청했던 적이 있다. 길을 잃었거나 강물에 빠졌거나 너무 어려운 일을 시도했을 수 있다. 우리가 소리쳐 도움을 청하면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구하러 오셨다.

지금 인류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는 그 어린 아이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강물에 떠내려가버릴 것이다. 우리는 인류로서 도움을 청할 아버지가 계시며 그는 우리를 구제하러 오실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어지는 여러 장을 통해 기후위기를 간략히 살펴본 후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누가 도움을 청할 것인지, 그리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다. 향후 중대하고 좋은 시대가 있을 것이다.

여명...

지평선 위의 따뜻한 구름

새로운 시작의 약속과 함께 21 세기의 동이 틀 무렵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를 알 수 있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견디어 냈으며 핵전쟁을 피했고 질병을 통제할 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가끔씩 발생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주어진 시간에 복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매우 상이한 전 세계적인 문제를 점점 더 인식하게 되었다. 한때는 풍요로웠던 호주의 곡창지대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 녹아 내리는 빙하, 그리고 성난 기후에 관한 뉴스는 과학자들이 수년간 인지하고 있었던 지구 기후의 위기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 문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어 그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에 한참이 걸렸다. 우리는 세상이 안정되어 있다고 항상 지레 짐작했기에 지구의 전체 기후 체계가 통제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우리가 산업혁명 중 이 위기의 씨앗을 심었다는 자각 또한 충격적이다. 이 위험을 알아채는 데 200 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은 이를 더 악화시켰다. 이 충격으로 인해 우리의 결정 능력에 대한 확신은 전 같지 않다.

느린 시작...

그 후 무사안일주의가 다가왔다. 환경의 변화는 짧은 시간 내 지질학적 규모가 되었지만 그 진행 속도는 완만해 보였다.

우리는 기후 변화에 익숙해 졌다. 심해지는 열파와 홍수는 우리 영토로 이주하는 일부 희안한 야수 떼같이 "철따라 찾아오는 경이로움"으로 응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것들을 침해로 보았지만 우려할 만한 대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 후, 북극 해빙, 몬순기후 이상과 대형 태풍에 관한 뉴스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우리의 경각심은 흐려졌다. 결국 이는 사회가 변화에 익숙해 저가고 있는 새로운 현상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현상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후 악화 방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양심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지금 괴로워하는 지구에 대한 진심어린 염려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했다. 인간 본성의 아름다운 면이 드러났다! 많은 것을 취하기만 했던 인류가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치기 시작한 것이다.

...자각의 시작

그러나 이러한 선의의 노력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측도 이해도 할 수 없는 상대, 우리가 기후에 관해 알고 있는 바를 매년

다시 쓰는 변화와 싸우고 있었다. 기후는 오래 전에 독자적인 면을 갖기 시작하여 더 이상 다루어야 할 “근본 원인”은 없으며 산업화된 우리의 생활방식을 바꿀 수도 없다. 과학자들과 양심있는 수백만 명의 일반인들은 앞에 놓인 초대형 작업에 대해 조사했고... 그 선명한 모습을 보았다.

우리가 2000 년도에 다가올 10 년 동안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체 결과를 알았더라면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이다. 그 다음 10 년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확고해진 사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주하는 무리 떼"는 우리가 안전하게 그들을 관측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전쟁이나 금융 파탄과는 다르다... 이 위기는 강력하며 은밀히 발생하고 통제불능이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위기의 근원이며 종말론적 위기이다.

우리가 생존을 바란다면 창조주로부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다.

하느님의 간섭

도움의 원천?

지구를 창조했던 분은 분명 지구를 치유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시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께서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불안감

이러한 우려는 종교에서 열렬하게 설교해 온 "종말"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다. 거의 모든 신앙은 하느님의 마지막 간섭을 무시무시하게 그린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가 하느님의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졌다.

*"성서에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
아닌가? 아마겟돈? 심판의 날?"*

환경 붕괴는 불신앙자들의 학살 이전에 하느님이 의도적으로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지를 그들은 우려했다. 이 생각은 하느님의 안전에서 과연 누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하는 무서운 질문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절박한 질문을 하게 한다.

"나는 충분히 선택했는가? 하느님은 어쨌든 나를
구원하실까? "단 하나의 진정한 종교"는 무엇인가?
어떻게 발견하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도움 요청을 두려워하며
다음과 같이 묻는다.

"이 환경현상으로 인한 종말 대신 하느님의
근원으로부터 우리의 종말을 부르는 것은 아닌가?"

기후위기만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느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하느님 자신이 이 일에 대해 무심해 하신다고 생각하면 비정하고
매우 충격적인 거부의 느낌이 든다.

회복

그러나 우리의 근시안적 지구 관리, 그 결과 고통에 신음하는 지구,
위험에 처한 우리의 삶과 심판에 대한 근심을 비롯한 상황들이
성령님께서 시의적절하게 하느님에 관한 오해를 제거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거의 2000 년 동안 "종말의 시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가 구원에 관해 평생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혼란스러울 정도로 많은 종교 에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느님은 무섭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에
이르는 길을 감추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이 바뀌었다.

위기의 현시대는 또한 거짓 가르침이 소멸하고 창세기의 최초 예언을 비롯한 예전에 유명했던 오래된 진리가 재등장하는 교화의 시대이기도 하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의 간섭에 관한 진리는 힘을 주고 명확성을 회복하며, 단순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안개가 걷힘

여러 종교에서 하느님을 냉혹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들은 하느님의 간섭이 선택된 소수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아마겟돈"의 격렬한 화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러한 설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올 신에 의한 학살을 두려워하며 살게 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독교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노의 대접의 증거, 말을 탄 "요한묵시록의 네 기사" 및 아마겟돈 대전쟁의 서막을 찾는다. 우리가 처한 시대조류에 관한 "숨겨진" 징후를 찾음으로써 그들은 하느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최후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그의 선택을 보증받기 원한다.

예정 시기 ...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 나는 주의 날에 있게 되었다.

요한계시록 1:10

이 주의 날은 예수가 지구를 통치하는 날이며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삼라만상 앞에서 성대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행사인 예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과 함께 이 날은 시작되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 비전 속에서 모든 것은 예수의 통치 전이 아니라 통치 중 일어난다.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지 않았고 나팔을 불지 않았고 그들의 본성이 유사하였지만 그 네 기사는 아직 말을 타지 않았다.

징후를 찾는 일과 갑자기 파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 다음에 일어날 거대한 사건이 무시무시한 아마겟돈은 아닐 것이다.

예고없는 심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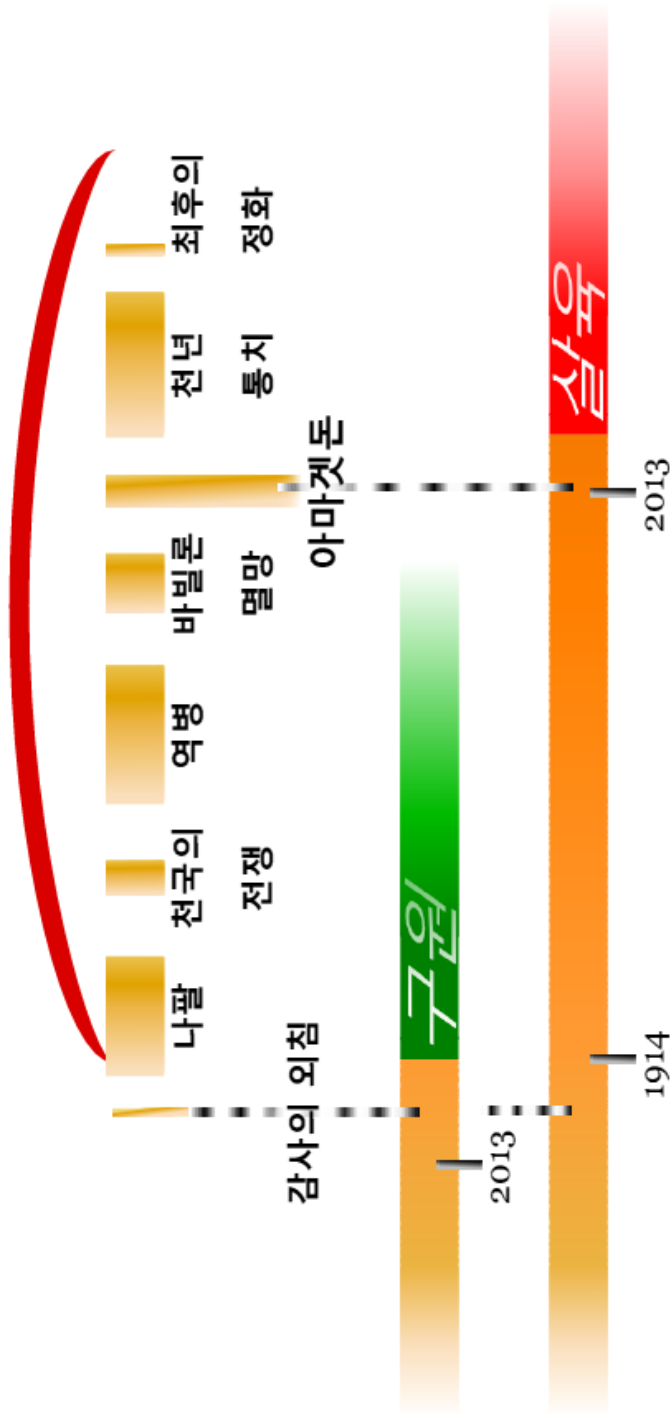
이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기습 공격"이 있을 것이며, 방심한 "불신앙자들"을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도록 잡아갈 것이라고 하며 두려움에 떠난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자신의 다음 말씀을 인용한다.

"그 날 또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니라,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가복음 13:32

그러나 이 성구는 한밤중에 하늘의 시계가 울릴 때 기습 공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단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행동을 전적으로 예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것을 알고 계셨으며, 우리의 잘못된

계시 비전 이벤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처한 위치는, 하나님의 개입이 탕자를 구원하시는 다정한 아버지로 나타날지 또는 순진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잔인한 헤롯으로 나타날지를 결정합니다.

구원이란 아마겟돈에서의 그의 행동이 냉혹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인류를 광적이고 사명에 이르게 하는 반란으로부터 구원하는 자비임을 의미합니다.

Fig. 1 계시 비전 이벤트

본성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얼마나 걸리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게 할 특정 위기가 무엇인가를 아셨다...

사건에 따라(시간표 아님)

진정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느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1,900 년 동안 하느님은 수시로 간섭하셨을 것이다. 이는 지구상에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그들이 하느님의 간섭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기후 위기가 바로 그 사건이다. 인류는 이전에 생존 자체를 위협했던 위험에 직면해 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지성들이 우리는 대재앙을 막을 힘이 없으며 오직 지켜보고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잃은 상태에서 결국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그 요청의 시기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

광범위한 상황

어떤 사람들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지금 바로 간섭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해 한다. 이렇게 지체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분명 그 위기만큼 중대하면서 우리에게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된 상황안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종말에 직면한 인류에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상황은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며, 우리를 구원하고 동일한 상황이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는 수세기 동안 종교 교리가 숨겨 온 사실인 하느님이 놀랍도록 자비로우시고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밝힌다.

이 간단하고 포괄적인 상황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주제이며, 창세기 성서 서두에 평이하게 기록되어 있다.

성서의 주제

인류는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가?

성서는 인류의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이며 하느님의 보살핌 아래 우리가 지나온 경과에 대한 이야기였어야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최악의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는 또한 우리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왜 하느님의 간섭이 임박했는가를 설명한다.

완벽한 시작...

두 명의 인간이 최초로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으로 알려진 하느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두 사람은 하느님의 도움과 자문을 받았으며 건강에 전혀 이상 없었고, 전 지구를 유업으로 받았다.

좋은 것은 다 가진 아담은 "좋지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느님은 아담에게 그러한 것을 알게 되면 그 자신 너무 많은 모순을 느낄 것이므로 알려고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담을 돕기 위해 하느님은 그가 또 생각의 길을 잃었을 때 위험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줄 나무를 한그루 지정하셨다. 그가 그 나무를 쳐다 보면 그의 생각이 교화되고 하느님의 충고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무로부터 돌아서면 그의 마음은 위험한 생각에서 벗어날 것이다.

...독립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에덴 동산의 천사 감독자(후에 "악마" 또는 "사탄"으로 알려짐)는 아담과 이브에게 하느님이 그들의 발전을 방해한다고 말하며 설득했다.

"너희들은"

그가 말하기를,

"독립만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 자신도 하느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느님의 돌보심에서 분리시키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몰랐고 그들의 삶이 하느님께 의존한다는 것도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독립을 선택했으며 에덴을 떠나 세상에서 홀로 권세를 가졌다. 이제 그들은 명령권자가 될 것이며 "자유"가 있으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도 된다.

의문...

어떤 사람들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간단히 그들을 파멸시키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지구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셨는가하고 궁금해하며 다음과 같이 물을 것이다.

"그에게 합당한 이유가 없었는가?
수천년의 문제를 피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행위는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지도, 이 문제에 대한 하느님의 주장을 입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피조물은 하늘에 속하거나 인간에 속하거나 그때까지 죽은 적이 없었다. 그 외, 하느님은 그들의 아버지였으며 그토록 냉정하게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는 없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아담에게 준 충고는 독립의 결과 대한 경고였지 처벌의 위협은 아니었다. 이 반란은 매우 젊은 피조물이 저지른 하나의 실수였을 뿐이다. 아담이 많은 경미한 실수를 저지른 후 그 실수로부터 배운 것처럼, 이 피조물도 배우고 회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하느님은 그들이 하느님 없이 생존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경고를 그들에게 상기시키신다. 그런 이후 하느님은 그들이 제 갈 길로 가게 하셔서, 아담이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아담의 자손들은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전체 주제이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해결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처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수백만 명을 학살하기 위해 재림하신다면 이는 아무 것도 입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하느님의 의도는 전체 인류로서의 우리가 배우고, 그 배움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이다.

배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목적을 위해 하느님은 이스라엘 국가와 이후 1 세기의 메시아를 그들의 시대를 위한 안내로 안수하셨다. 이들을 예상하여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유월절, 및 솔로몬왕 등 예언적인 사건을 역사를 통해 설정하여, 이들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이들 모두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다. 이들은 각각 세상에서 하느님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 이후 하느님의 의도는 시험의 시기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어 아담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충고를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간청할 자를 알아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그 후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재림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디딤돌을 제공할 것이다.

중대한 사건

그리스도 이후 우리의 역사가 파란만장했지만 우리는 "시험의 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17 세기에 우리는 기후 위기의 씨앗을 뿌렸으며 그 후에도 여전히(20 세기 중엽) 이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그 씨를 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느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독립과 하느님에 대한 와전으로 인해 이를 잊어 버리게 되었다.

이를 예상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필요의 시기와 일치하는 지원을 준비하셨다. 이는 예언자인데,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할 인류의 독립 시대(아담의 에덴동산 추방 이후 하느님의 구원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인류 독립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

하느님의 안내도 예언자도 당연히 없었던 사도의 시대 이래, 많은 세대가 지나갔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래, 우리는 율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하느님의 과분하신 돌봄 아래 살았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였으며...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니 우리는 더 이상 가정 교사를 따르지 않는다

갈라디아서 3:24-25

또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주의 과분한 돌봄¹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

사도행전 15:11

용서의 날개 아래에서는 심판이 있을 수 없으며, 예수께서 직접 어떻게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 시대를

¹"과분한" 이유는 그의 희생이 율법이 희생을 요구했던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이며, 그리고 또 "돌봄" 이유는 율법이 그 주체에게 요구했던 엄격함과 반대로 그가 주었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우리는 그 이상의 지침이 필요 없었으며 그 이상의 예언자도 필요 없었다...

마지막 예언자의 필요성

기후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그 "중대한 사건"은 창세기에 언급된 다음 문제를 재론할 것이다.

"인류는 하느님 없이 살 수 있는가?"

기후 위기는 막을 수도 예방할 수도 없으며, 너무 악화되어 기술로 치유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를 완화하는 데 필요한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방법을 찾지는 못할 것이다. 기후 위기는 소멸되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기 위해 격렬하게 움직일 것이며, 그리고 유예없이 움직여 지구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다. 더 강력한 힘 앞에서 우리는 관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명한 과학자들은 인정한다. 그렇다, 창세기의 의문은 답을 찾았다. 우리의 게임은 "종반전"이 지났으며 그 결과는 더 이상 의심할 바 없다. 우리는 장기로 치면 곧 "장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위기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자문을 원하지만, 이 경우 인간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자문도 비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자문은 존재하며, 이는 우리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로부터 온다...

마지막 예언자

역설적으로, 마지막 예언자는 지구이며, 바로 그 기후는 그 목소리이다. 하느님은 그의 조언자를 우리를 위협하는 바로 그 재앙 안에 두셨다.

인간이 지금껏 행한 모든 것을 목격해 온 지구, 하느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인류가 보호하기로 동의했던 지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구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을 정복하라"

창세기 1:28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 뿐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그의 피조물의 거처를 실제로 위험한 곳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기후는 창세기의 바로 그 문제, 우리의 생존의 열쇠인 그 문제를 또한 제기하고 있다.

모든 예언자와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 행위의 결과로 생겼다. 모든 예언자처럼, 이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거부해서가 아니라, 하느님 없이 생존하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거부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왔던 예언자들과는 달리, 이

예언자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고 불신이나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이것이 이 메시지를 위해 유일하게 필요한 예언자이며, 하느님으로부터 우리의 독립이 헛됨을 알려주는 완벽한 목격자이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발언보다 더 효과적으로 모든 산 사람의 마음을 향해 직접 초월적인 언어, 지성, 신분 및 믿음을 이야기한다. 위기는 소용돌이형 본질로 인해 우리가 수많은 세대 이전에 떠났던 하느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말" 할 것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는 **방탕한 아들**의 예화를 주셨다...

방탕한 아들

한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그의 유산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다. 독립된 삶을 찾아 부모의 지혜를 멀리하고 떠난 그는 이윽고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했다. 마침내, 빈곤과 굶주림에 지친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가 아직은 집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르렀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뛰어나가 맞았다. 아들이 뉘우칠 때 아버지는 **한없는 기쁨**을 나타냈고, 돌아온 그를 아들로써 **기쁘게 환영**하고 그의 돌아옴을 아낌없이 축복했다.

누가복음 15:11-32
(요약)

인류는 방탕한 아들이다. 최초 두 인간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예정된 유산인 지구를 받았다. 우리는 독립하여 살아왔으며,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정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는 뛰어나와 우리를 맞으실 것이다. 학살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보살핌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맞으실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자주 듣는 질문을 제기한다.

"누가 우리를 하느님께 인도하고, 수많은 교회 중 어느 교회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을 대변해야 하는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마지막 예언자는 특정 인종, 종교, 목사 또는 국가를 편애하거나 추천하지 않으며 하느님께만 속한다. 그 자체로 마지막 예언자는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호소한다.

지구 상에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없으며 우리를 위해 중재해 줄 교회도 없다. 우리의 교화와 구제의 시간은 매우 중대하여 이렇게 산만한 것들을 허용할 수 없다.

그 대신, 마지막 예언자가 우리의 탄원을 직접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전달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접근 방식

주기도문을 충성스럽게 따르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 가장 선한 자들이 기도했지만 하느님의 왕국은 실현되지 않았다. 기후 위기 자체에 관해서도 기도자들은 하느님의 간섭을 실현시키지 못했다.

침묵은 기도자들의 부족한 믿음이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니다. 진심어린 기도자들은 분명히 귀한 존재이지만 종교 조직은 압박한 하늘의 중재에서 수행할 역할이 없다. 하느님은 특별한 요청을 기다리신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도 진심어린 예배도 아니고 심지어 선악의 문제도 아니며, 권세의 문제이다...

권세에 관한 질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독립을 선택했을 때 그는 후손들의 나아갈 방향과 복지를 책임지게 되었다. 인간은 지구에서 신의 지위를 차지했다.

각 국가는 여러 시대를 통해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권세를 물려 받았으며 통치자는 자신의 국가의 전 국민을 대표한다. 성서에서 통치자들은 "상급 권세"로서 그들의 직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했다.

모든 사람을 상급 권세에 복종하게 하라,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기존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정하신 대로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세에 반대하는 자들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바를 거스렸던 것이다. 이러한 권세에 저항했던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통치자는 선행이 아닌 악행으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너는 권세를 두려워 하지 않기를 원하는가? 그럴 경우 선을 지속적으로 행하면 그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할 때 그는 하느님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그가 목적없이 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느님의 사자이며,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표하는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1-4

모든 국가의 통치자가 자비롭거나 잔인하거나에 상관없이 이것이 그들의 방식이다. 이러한 증거로 유대국가의 특정 혼란기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주를 위하여 모든 인간의 제도에 복종하라. 상급의 왕이건 그가 악행자를 벌하고 선행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이건 상관없이 복종하라. ... 못사람을 공경하고 [영적인]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베드로전서 2:13-17

당시의 “왕”은 포악한 네로였다! 따라서 바울과 후에 베드로는 국민은 집권자가 누구이건 간에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일관성있게 조언했다.

현대의 권세

따라서 오늘날 각 국가는 직권력이 있는 통치자와 국가 지도자가 국민에 대한 상급 권세를 구성한다. 이들 몇백 명의 남녀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담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으로부터 찬탈했던 세상에 대한 권세 전체를 집단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구제를 요청해야 할 자들이다. 이들의 행동을 반대할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은 없으며 이들의 요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역사 상 처음으로 그들의 요청에 의해, 아담이 창조주로부터 찬탈했던 완전한 권세로 하늘에 호소할 것이다.

믿음이 충실한 자들에게 부당해 보이는 것은 이 때 그들은 마치 모세가 홍해 해안가에 서 있었던 것과 같이 단지 "서서 지켜보기"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은 "단지 구경꾼"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 요약

본 섹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설명했다. 많은 종교의 약속과 달리, 하느님의 간섭에 의한 우리의 구원은 이에 대한 믿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엄한 목적의 결과이다.

파트 2 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요청에 대답하시는가를 설명하고,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보존을 성서에 언급된 구원과 비교하며, 하느님의 거룩한 구제의 전체 범위를 보여줄 것이다.

파트 2

—

우리의 요청에 대한
응답

우리의 요청 및 하느님의 응답

우리의 통치자가 하늘에 요청할 때 일부가 불신앙자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름의 하느님을 신봉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알라" 또는 "야훼",
"아버지" 또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하나의 이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 권세로부터의 요청에 응답하실 것이다.

공포

일부 통치자는 불안해 할 것이다. 그들은 통상 도움을 받으면 주로 재정적인 댓가, 때론 자유의 상실을 비롯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의 댓가로 권세를 요구할 때 일부는 쓰라린 경험의 시간을 상기했을 수도 있지만, 자신들이 처한 역경에 대한 염려와 동일한 긴급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예상되는 무력감과 종속감은 위급함 만큼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통치자들이 연합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허약하게 보이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없고 힘있는 이웃의 의욕을 감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대한 요청이 일종의 행복이라는 우려에서 불안을 느낄 것이다. 결국, 그들은 필사적으로 낫선 권능에게 호소하고 있으며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안심

그러나 하느님의 응답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안심하게 하며, 국가가 경험했던 바와 매우 다르다.

첫째, 하느님의 임재가 하늘에 나타나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협해 온 기후 보다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신속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권능은 명확하지만 거창하지 않으며, 광대하지만 강요되거나 눈에 잘 띄는 모습은 아니다. 통치자들은 임박한 기후위기가 홍해의 바닷물처럼 정지된 것을 흘깃 보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요청에 따라 도래한 권능의 자비를 인식할 것이다!

사람들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을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 왔지만 신속히 응답해 주셨다. 하느님은 그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결코 강요하지 않으셨다. 그의 간섭은 인류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수 세대 전에 이루고자 했던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은 신속히 행동하실 것이다. 그의 간섭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에 그가 인류를 대하던 것과 같은 선상에 있고,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도록 역사를 통해 그가 사건을 설정했다는 것을 하느님은 공고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생각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우리가 홀로였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순간 이해하게 된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에게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연후 그는 우리의 구제는 그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고 공고하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요청에 답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세계의 통치자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 요청했지 그 아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완전히 다른 신앙을 통해 하느님을 예배했다. 전 세계가 메시아를 하늘의 자비로운 권세로서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하느님께서 직접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큰 문제는 당연히 기후의 치유일 것이며, 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소개는 피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간섭의 맥락을 알면 우리는 이것이 신속한 구제 이상이며 그가 멋진 미래로 가는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하느님 간섭의 맥락

하느님의 간섭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며 성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지원이시다. 그것은 자체가 히브리

국가였던 첫번째 디딤돌에서 비롯되었던 것처럼 현재의 디딤돌인 기독교 방식은 구축될 것이다.

기독교 방식의 지속적인 맥락은 마태복음의 말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하늘과 지구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마태복음 28:18

이 시간 이후, 하늘에 하는 모든 기도, 하느님께 하는 모든 요청, 그리고 성령께 하는 모든 부탁은 하늘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 이 동일한 하느님의 아들이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전능자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의 요청을 들으신지 1,900 년 후 우리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매우 깊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확신있게 느낄 수 있다.

하느님의 직접 간섭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권세의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회복의 다음 단계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박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하느님께 종속시켰을 때 그의 아들에게도 또한 종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하느님의 간섭 방식을 설명하며 그리스도 생애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한다...

그리스도의 역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에게 속할 때 요한계시록과 디모데전서의 성구는 실현되며 예수는 다음과 같은 분이 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²

디모데전서 6:15
요한계시록 17:14 및 19:16

이것이 왜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만 하늘에 요청할 특권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이다. 그들의 요청은 전 지구를 치유하고 지켜야 할 권세를 가진 이 새롭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정당화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첫 번째 사건은 이 대관식이며, 이 때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고 땅위에 있고 땅 아래 있고 바다 위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 5:13

² '왕으로써 통치하는 왕 [국가 원수]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 [국가 지도자]' - 디모데

지구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은 전무한 일이지만 우리가 구제받을 때 전 세계에서 안도의 표현으로 울려 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의 사안이 신속히 해결되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자신은 물러가시며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하게 하신다. 이제 하느님의 구제를 시작할 수 있다.

하느님의 구제

안전

우리의 새 왕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우리 요청의 이유인 기후를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미 갈릴리 해상에서 악천후를 잔잔하게 하신 적이 있다.

그가 배에 오르시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라 배에 탔다. 보아라! 바다에 큰 태풍이 일어나 배가 파도로 인해 물이 찼다. 그런데 예수는 주무셨다. 제자들이 그를 깨우며 말했다.

"주여!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 적은 자들아?"

일어나신 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놀라서 서로에게 말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 이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8:23-27

기후는 신속히 잔잔해 저서 거의 사소해 보일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작은 기적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이

하늘에 나타나신다는 사실은 진정 경이로운 일이며 그 이유는 그 광경이
인간 본성의 치유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구제

명확성

하느님의 출현은 우리에게 이상의 명확성을 주며 순식간에 우리의 수많은 오해를 제거한다.

하느님의 증명

그 날 이후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없이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며 우리를 방문하셨던 막대한 권능이 도와 주시기 위해 여기에 계신다. 나아가 하느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역사상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를 번복하셨다...

종교 혼란의 종언

종교는 신비주의적이지 않아야 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각 종교는 현존하는 타종교를 보게 되며, 왜 그들만 땅을 물려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라는 분열을 조장하는 용어는 없어질 것이며, 자신들이 하느님의 "구원의 문지기"라는 그들의 가정은 증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종교에 대한 두려움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이 그들을 대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믿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며 다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부여했던 자유 의지를 하느님은 예배자들이 다시 갖게 하실 것이다.

자유 의지

우리의 "독립 시대"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삶은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만족을 주지 못하는 변장한 다람쥐 쳇바퀴이다.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고 많은 기대를 하지만 결실은 맺지 못하지만, 이들은 삶의 모든 단계를 지배한다.

그러나 인자하고 현명한 왕은 이제 지구에 대한 권세를 가졌으며, 이 왕에게는 뇌물을 상납하거나 위협을 할 수도 없고, 속임수를 쓸 수도 없으므로, 우리는 진정한 독립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꺾박받는 자를 초대할 때 하신 말씀을 상기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쉬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1:28-30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강요 받았다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하느님은 아신다. 자유 의지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값있게 하는 것이며 하느님은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경쟁, 전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외모에 의한 평가 등 우리 시대의 모든 인위적인 통제는 우리의 어깨에서 내리워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대신 우리 개발의 완벽한 토대인 마음의 자유를 갖게 된다.

혼란이 없는 권세

강대국은 약소국을 항상 지배했다. 그러나 이제는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안전에서 편애받는 국가는 없으며 모든 국가는 자신들을 다스리는 동일한 왕을 갖게 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기 때문이다. 부, 권력, 및 풍부한 자원으로 하느님의 호의를 사지 못한다. “강대”와 “약소”라는 말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선한 동기가 새로운 황금이 될 것이며 이는 왕 중의 왕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지도자들은 모든 문제를 더 이상 직접 해결할 필요도, 자신들의 한계에 대해 근심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왕 중의 왕께서 직접 그들을 안내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성공은 더 이상 권력과 무역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새 왕과 협력하여 일하는 자들은 자국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히브리 사람에게 보고한 것을 상기시킨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느님이며, 네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네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

네가 내 명령에 실제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네 의가 바다 물결같이 [생동]했을 것이다.

네 자손이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이 [춤을 추었을] 것이며 네 후손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사야 48:17-19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초기에 고위직을 버리고 말없이 떠난 자들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고 자신의 직책 임기가 완전하게 종결되었음을 느끼게 될 왕들과 통치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위직을 떠나서 자신을 위한 "강같은 평강"을 구할 것이며,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하느님의 안내를 따르며,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배의 명확성

자립 상태로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렇게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신성, 즉 하느님의 영을 배우기 원하는 자들은 단지 "종교에서 위안을 구함"이 아니라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하느님의 사랑은 철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자신께서 우리 모두를 위한 하느님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세계 각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명확해질 것이다.

예배는 두려움이나 죄의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개발하심에 관한 것임을 우리 모두는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탄원자로서가 아니라 그의 자녀, 신성을 보내어 안내하고 보호하게 하셨던 자녀로서 지으신 하느님 의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안내

처음으로 지구에서 하느님의 안내가 활발해질 것이다. 오랫동안 제멋대로 있었던 인성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의 지원과 경쟁으로서 신성이 주어졌다. "지원"은 우리를 실제 삶에 대처하게 하고 "경쟁"은 자립 이상의 그 무엇이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신성은 일단 나타나면 여기에 머물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산상 수훈에서 전하신 복음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의 종교를 따르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즉시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는 방식에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서기관이 아닌 권세있는 자로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28-29

그가 팔레스틴에서 보여준 모든 친절, 모든 격려, 및 모든 유머는 여전히 그의 성격의 일부이다. 그는 위협하지 않고 친절로, 악한 비교가 아닌 선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며, 길을 따라 걷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새로워 질 것이라는 것을 아셨다.

이러한 자각, 즉 이상의 명확성은 하느님의 거룩한 구제의 일부일 뿐이다. 이는 미래의 토대를 구성하며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개인의 심판은 전혀 없고 심지어 믿음에 대한 기대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했을 때 과거에 불가능했던 위대한 것들이 손 닿는 데에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구제

진정한 구제

인류가 절멸에서 구원되었지만 이는 사도들이 설교했던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 아니다. 기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구원했지만 진정한 구제는 하느님의 인정을 통해 후에 도래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정확히 이 목적, 즉 하느님의 중재에 대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생생할 때 이를 강화하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반면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에 의해 구제되었다. 태초에 그것은 인간의 것이었으며 다시 우리의 것이 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신다.

오직 우리의 새로운 왕께서만 하늘의 아버지께 가깝게 머무는 데 대한 진정한 유익을 보여주실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 외 어떤 이에게도 구원이 없다. 하늘 아래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사도행전 4:12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가 없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아들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본 것만 행할 수 있다."

요한 복음 8:29 & 5:19

우리의 왕은 불멸이시지만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삶의 안내자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삶은 새롭지도 영적이지도 않지만, 우리를 번창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이를 양육하신다고 그는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생존에 그칠 것이다.

따라서 수 백년 동안 참을성 있게 우리의 주께서 우리 각자를 최근에 사망과 실망으로 향한 길이라고 밝혀진 독립으로부터 멀리 은유하게 안내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를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영속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원히 계속되는 개발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주의 통치가 끝날 무렵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왕 중의 왕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제하셔서 이전에 행하신 우리 육신의 거룩한 구제를 보완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단어의 관습적인 의미에서 인명 구조는 정말 아닐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환경을 변형시키는데 있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통치가 끝날 때, 인간들을 "뉘아채듯이 안전한 곳으로" 구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아름답고 안전하게 될

것이 때문이다. 행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그들 주위에
건설될 것이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 주의 통치의 다른 면, 즉 "아마겟돈", 하느님의 진노의
대접, 땅으로 내던져지는 바벨론 및 "바벨론 대제국의 패망"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어떤가?"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의
노력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심판의 날은 어떤가?"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 세대를 걸쳐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지만 이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도움 요청에 대해 기습적인 학살이 발생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여정에 예상치 못한 하느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심판의 날과 요한계시록의 질풍노도와 같은 사건도 또한
매우 구체적인 맥락 안에 있다...

하느님의 구제

심판과 계시

삶의 열쇠는 이를 주시는 분에 대한 진심어린 감사이다.

그것만이 삶을 위한 길이며 유일한 요건이다. 하느님을 믿기 꺼려하는 자들에게 압력이나 강요, 위협은 없다. 그의 선한 본성은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이며 질문의 여지없이 때가 되면 모든 이의 마음을 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였으며 그에게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심판의 날과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은 이러한 맥락 안에 있다. 이것들은 선한 마음에 대한 심판은 아니며 세상을 다시 독차지하기를 원하는 자들에 대한 결과이다.

심판

하느님은 우리를 구제하실 때 진정한 정의를 보여 주셨다. 그는 인류가 사도들 이후 예언자도 없고 거룩한 나라도 없어서 조만간 방황하게 될 것을 앞서 알고 계셨다. 우리의 고립상태는 선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이미 악에 대해 알고 있는 인류 안에 지속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는 우리의 마지막 세대를 책망해서는 안된다고 이해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내재하게 된 뿌리깊은 독립의 희생자들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그의 유일한 심판은 인류는 그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우리 통치자들의 고백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중, 신성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수립될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과거에 했던 행적에 상관없이 베드로가 말한 바 있는 진정한 구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직접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이에 대한 확신을 주었다.

“하느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며 그를 믿는 자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느님은 세상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를 심판하게 하신 것이 아니며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받게 하셨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심판의 근거이다. 빛이 세상을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악하였으므로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데 이는 그의 행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진리를 행한 자는 빛으로 오는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3:16-21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무서운 심판의 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 면책특권은 쉽게 얻는다. 이에 이르는 데 기준이나 통과해야 할 결승점 같은 것은 없다. 진심어린 마음과 진전은 모두 안전할 것이다. 이는 독립의 유혹이 아닌 하나님 아래 값진 삶으로 오기 때문이다.

심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반대로 옛날 방식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은 변화된 세상이 매우 불편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그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던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경쟁과 기회가 없다. 이 거룩한 변화는 독립으로 회귀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너무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인류는 두 갈래로 나누어질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구를 청소해 주신 것을 감사할 것이지만 변하지 않은 자들은 지구 자체를 탐내기만 할 것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자유로운 땅에서 그 수가 몇 배로 번성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계속 번성할 것이다. 지구를 간단히 두 개로 나눌 수 없는데 이 반역자들의 본성은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변하는 세상을 지켜보면서 고대의 그 이집트인들을 본받아 이를 무력으로 되찾으려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담이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다시 독립하려는 시도의 결과에 대해 미리 경고하는 것이다. 나팔 소리와 하느님 진노의 대접은 그들의 위험한 진행과 관련된 그의 충고이다. 마찬가지로 아마겟돈과 최후 공격을 묘사한 것을 보면 반역자들에게 절박해 질수록 자신들의 행위가 필연적으로 얼마나 잔인해 질 것인지 경고한다.

파란만장한 여정의 계시

폭거는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 괴롭힐 것이다.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바는 하느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진심으로 반역하지 않은 자들을 구제하신다는 사실이다.

다시 입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진정 완강한 자들은 마음을 모질게 먹는다. 신성의 영향을 막을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들은 아마겟돈이라는 행위로 세력에 가담하고 모여 왕 중의 불멸의 왕에게 저항할 것이다.

아마겟돈 - 에덴동산의 재방문

오래 전 에덴동산에서 하느님의 경고는 실망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독립을 추구하도록 허락받았다. 결과를 예언했던 그 경고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도 수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수천년이 지나서야

그의 먼 후손들인 우리가 하느님이 항상 옳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의 통치 기간 중 독립하려고 다시 똑같은 노력을 할 경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성서의 주제는 이미 입증되었다. 이번에는 에덴동산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인류 전체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보살핌 아래 만족하며 살고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반역하는 감독자와 반대로, 왕 중의 왕은 반역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의 시대에 있었던 하느님을 거역하는 합의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반역자들이 몰려들어갈 광대한 벌판인 "에덴의 동쪽"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는 새로운 에덴동산으로 변형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것 뿐만 아니라 독립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를 좌우했던 경쟁과 소유를 원하는 열망은 여전히 그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될 것이다.

이것이 두 가지 본성 사이의 차이점이다. “독립” 자체가 아니라, 독립의 유해한 결과물인 어리석은 방종에 대한 중독이 그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에덴동산에서 인간이 몰락했을 때 시작되었으며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선택한 건강한 존재에 대한 정반대이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마지막 디딤돌인 그리스도의 통치 중, 거룩한 구제를 시작하실 때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구하신데서, 반역자들은 사망을 다시 도입할 것이다. 그들은 지구를 재탈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지만 그들이 믿음이 충실한 자들에 맞서 위협하는 그 죽음이 그들 자신의 죄의 댓가가 되고 하늘은 생명의 길 위의 그들을 보호한다.

심판의 날도 요한계시록의 사건도 믿음이 충실한 자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다. 반역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하늘의 반감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반역자들이 제거된 지구에서 인류는 그리스도의 천상 공동 통치자들에 의한 "천년 통치"인 일천년의 회복기를 누릴 것이다. 그 후 마귀가 다시 나타나 회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때 마침내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에 의해 직접 제거될 것이다.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이에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열쇠이며 이 열쇠를 붙잡고 있기만 하면 이러한 역경의 시대를 통해 하늘의 보호가 보증된다.

모두가 분명 그것을 잡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결론에 이를 때 그 생명은 지평성 상에 장엄하게 나타난다...

하느님의 구제 삶에 들어섬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갈 때 사람들은 그 여정을 돌아볼 것이다.

하느님의 구제는 우리를 기후위기로부터 구원할 것이며 우리의 회복을 위협했던 인간 본성의 모든 흔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했다. 우리는 하느님과의 우정이 고립 보다 훨씬 더 만족을 주며 결과적으로 그의 지구 창조 완성에서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권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그가 진실로 소중히하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가 모든 [논쟁하기 좋아하는] 정치, 영향력과 능력을 떨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느님께 바칠 때라. 하느님이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왕으로서 다스려야만 한다. 마지막 원수로서 "사망"이 멸망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24-26

지구와 사람들이 아름답게 준비된 시간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광스러운

끝을 맺는다. 마침내 인류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서 모실 준비가 될 것이다.

안전으로부터... 삶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를 인간 본성으로부터 회복시키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도제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일할 전망으로 영원한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육과 영의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자신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의지하고 있는 동일한 삶의 생생한 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사는 것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어떻게 인류가 하느님 없이 삶을 견뎌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그 고립의 세월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사라질 것이며, 그에게 가까이 머무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풍요해지고 실현되어가는 삶으로 인도될 것이다.

... 요약

본서의 파트 1 은 인류의 하느님 간섭 요청을 설명했으며, 파트 2 는 하느님의 구제의 깊이와 그 이면의 내용을 설명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섹션은 이 좋은 소식이 우리 시대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파트 3

—

하느님의 간섭에서 우리의 역할

감사

하늘의 요청을 기다리는 중에, 평범한 사람인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필요 시대에 하느님의 성령은 우리를 위해 구제를 준비하셨다고 분명히 계시하셨다.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보증이 있으며, 이 소식은 우리 자신 및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큰 안도감을 준다. 이에 대해 생각 할수록 우리는 안전을 더 강하게 느낀다. 하느님으로부터의 모든 예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유익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 즉, 우리는 지금 선견지명으로 인한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익을 추수하며, 이에 따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위기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킨다.

안도!

과거 수십년 동안, 우리 자녀들의 암담한 미래, 인류의 종말!,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의 황폐화, 임박한 아마겟돈과 하느님의 심판 등 가장 어두운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친절에 의해 우리는 숨을 편히 쉴 수 있다. 그의 메시지는 국가들이 역경에 처한 시기와 관련하여 예수가 그의 사도들에게 한 말과 일치하며,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지구를 역경에 처하게 할 일들을 예상하고 두려워하여 기절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 그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시작될 때, 일어나서 너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왔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26-28

그렇다, 기후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통치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전에 이는 많은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러나 구제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는 머리를 높이 들고 미래를 확신있게 직면할 수 있다. 지평선 상으로 진정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따라서 우리는 확신과 안도로 세상을 다시 보며 더 나은 삶을 예견할 수 있다. 목적상실, 불의와 삶의 공허함은 하늘이 우리의 방식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모두 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거의 맞볼 수 있다. 심지어 우리는 치명적인 기후위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지도 모른다. 안도감이 그토록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느님의 돌보심 덕분에 우리가 미래에 대해 갖는 새로운 확신이다...

이것을 결실 맺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전지전능하신 이에 대한
우리의 요청이다...

언제 우리는 요청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기 전에 갑자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알 고어(Al Gore)는 그의 강연, "불편한 진실"에서 조금씩 온도가 상승하는 수영장에 앉아 있는 개구리의 예를 들었다. 이 개구리는 상승하는 온도가 뜨거워질 때도 참고 있었다. 아주 완만하게 상승했기 때문이었다. 구제되지 않으면 개구리는 조용히 열에 압도되어 죽을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

그 개구리와 달리, 우리는 점증적이며 갑작스런 변화를 모두 경험할 것이다. 그 중 갑작스런 변화가 우리를 둘러싼 위협의 깊이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킬 것이다.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 교수는 북극 온난화를 한 예로 인용하면서 잔에 담긴 물에 떠있는 얼음에 비유했다. 얼음이 녹을 때 온도는 아주 시원하고, 얼음이 약간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얼음이 모두 녹은 후 수온은 급속히 상승한다. 마찬가지로 갑작스런 북극의 온난화는 해수면, 기후체계, 심지어 해조류의 경로를 변화시켜서 파괴적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사건 중 극빙 감소, 영구 동토층으로부터 갑작스런 메탄 방출, 해양 기능 붕괴, 우림의 자연발화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우리의 통제 능력 밖에 있다. 심지어 수확 실패, 영구적인 가뭄에 의한 빙하 해빙, 및 광범위한 인구 이동 등 단순하고, 보다 상투적인 재앙도 우리에게서는 너무 큰 부담이다.

이들 중 아무것이나 우리의 요청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고맙게도 기꺼이 그렇게 할 세계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높이 계시는 이의 염려

하느님이 자신들을 고위직에 배치한 이유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는 통치자들이 있으며 우리가 의심해야 할 자들도 있다! 전지전능하신 이를 진실하게 믿는 남자와 여자는 위기의 시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들의 경력으로 술수를 쓴다.

많은 해당 지도자들은 그 위대한 날 전에 사임하지만 재임 중 수행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들의 후임자들은 요청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하고, 그들의 직책은 전지전능하신 이에 대한 확신, 하느님의 구제에 대한 믿음을 쌓을 필요가 있고, 방해없이 하느님을 생각할 의지, 그를 마지막 방책의 옵션 이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존경의 토대를 구축한 모든 통치자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사임할 때 그들은 미래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특별한 특권이지만 토대를 구축했던 자들은 그들의 계승자들 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받을 수 있다. 니르웨의 왕이 회개하여 하느님의 진노로부터 백성을 구했지만 그는 단지 초기의 겸손한 사자이며 그 이름이 요나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통치자이건 백성이건 모두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느님의 간섭이 더 가까이 오게 할 어떤 것...

우리의 유일하고 거룩한 특권

우리 시대의 남은 기간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다.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된 기대이며, 심지어
아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제에 대한 명백한 제시이다.
이로 인해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목격했다.

믿음에 의해 우리는 [상이한] 시대가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나온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의 상황을 완벽하게 설명하며, 수반하는 믿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한다. 같은 정신으로 저자는 아브라함, 노아, 모세와 그 외 과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의 이름은 약속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영원히 살며, 그 믿음은 하느님의 목적에 따른 그들의
역할을 통해 지속된다. 이 저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믿음을 통해 증거를
개인적으로 받았으나 [이러한 믿음있는 자들]이 우리와

따로 완전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실제 실현]은 받지 않았다.

히브리서 11

그는 믿음보다 더 좋은 "실제 실현"인 약속의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크게 축복을 받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노니. 많은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들은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했으며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지만 듣지 못했다.

그러므로 ...들어라"

마태복음 13:16-18

그리고 우리 중 누가 예수의 시대가 아닌 아브라함의 시대 또는 노아의 시대에 살려고 할 것인가!

우리 구제에 대한 약속의 실현,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는 실현, 그리고 처음으로 하느님 자신의 임재를 경험한 실현 등 우리는 실재에 매우 가깝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하느님이 중재할 때 믿음이 필요없으며 우리 앞에는 실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대한 날 전에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봉사가 있다.

세례 요한의 정신

우리 시대의 최후의 날은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보이게 될 마지막 기회이다. 메시아의 통치가 아름다울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 보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통틀어 후회할 것이다.

우리는 하느님이 도래하기 전, 그를 자비롭고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고자 하는 확신을 주어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할 기회가 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에서 보여주었던 정신이다. 또한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선포하셨지만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다음과 같은 요한의 메시지였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게 펴져야 하고 거친 곳이 평탄해져야 한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느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 3:4-6

또한 하느님의 거룩한 구제에 관한 이 소식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중한 뉴스이며, 이것이 하느님을 위해 현저하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라.

기회의 시대

나중에는 이러한 토대를 획득할 수 없으며, 하늘과 시의적절한 우정에 대한 독특한 유익을 미래에는 구축 할 수 없다. 신실한 시몬과 안나, "동방에서 온 현명한 자"와 세례 요한 등 우리 주의

도착을 알려준 자들의 정신은 오랫동안 찬사를 받았는데, 그 정신은 이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독특하고 거룩한 특권이며, 전지전능하신 이와 그의 아들을 맞는 역사적인 환영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회이다.

우리는 예수의 삽화에 나오는 기름 램프를 든 처녀들 처럼, 믿음의 성화 봉송자들로 휘황찬란한 광경을 조성하여 하늘이 지구로 접근하면서 세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은 그가 가졌던 것과 같은 확신으로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이다.

진정한 삶은 하느님과 의 우정이다.

우리 측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넘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기적을 볼 것이다. 즉, 이 세상은 아주 제 멋대로이고 끔찍한 영향 아래 놓여 있지만 하느님의 성령을 맞이했던 마음, 전 세계에서 그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거룩한 구제에 따라 지구 자체의 전주곡을 불렀던 들뜬 마음을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부록

하느님 목적의 단순성은 진화, 예언적인 연구, 및 "진정한 단일 종교"를 통한 구원의 복잡성과 비교하면 확신이 안 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과 그 외 질문들을 www.worshipJehovah.org 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웹사이트에서 해당 질문들을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글을 맺으면서 다음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하늘의 우리 아버지

그의 성령을 통해 그의 거룩한 구제의 아름다움과 단순성을 계시해 주심에
대해

아멘

참고 문헌

성서

사라지는 가이아의 얼굴(**The Vanishing Face of Gaia**)

— *James Lovelock (Penguin Books, London 2010)*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 *Al Gore (Bloomsbury, London 2005)*

지구 경고(**Global Warning**): **A Horizon Special**

— *BBC 텔레비전 다큐멘터리*